

#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창의적 특성과 성격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

## Young Children's Creative Traits, Personality, and Demographic Variables to Their Learning Readiness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조성연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Professor : Songyon Cho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young children's creative trait and personality affecting their learning readiness. The participants were 131 young children in kindergartens or nursery schools and their mothers from Seoul, Gyeonggi and Chungnam province. The instruments were the Korea Learning Readiness Test, Young Children's Creative Traits Test, and Young Children's Personality Test. The data were analyzed by one-way ANOVA, t-test, Pearson's partial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d Scheffé test by SPSS PC(version17.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creative trait and personality by children's age, location, school type, father's age, 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mother's job type, whil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reative trait and the subfactor scores of personality by children's sex, father's educational level and parents' job type. Secondly, there was a positive partial correlation( $r = .20 \sim .24$ ) between young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and creative trait, while there were no correlations between their learning readiness and personality and between their personality and creative trait. Thirdly, cognitive factor of creative trait and father's educational level did not effectively explain the children's learning readiness.

주제어(Key Words) : 유아(young children), 학습준비도(learning readiness), 창의적 특성(creative trait), 성격(personality)

Corresponding Author : Songyon Ch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oseo University, 268 Anso-dong, Dongnam-gu, Cheonan-si, Chungnam-do, 330-718, Korea Tel: +82-41-560-8133 Fax: +82-41-560-8101 E-mail: sycho@hoseo.edu

\* 이 논문은 2008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8-0005).

## I. 서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 다양한 가족유형의 등장,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취학전 교육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유아의 발달이 빨라지면서 부모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조기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이 많아 정부는 1996년부터 5세아 조기 취학을 허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발달 수준이 낮고, 조기 취학을 한다고 해도 체격이나 언어, 인지 등의 발달이 정상적인 연령에 취학한 유아들에 비해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취학을 유예하는 유아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만 5세 조기취학 아동은 총 2,296명으로 2006년의 2,817명에 비해 521명이 줄었다. 이는 2004년의 4,434명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반으로 줄어든 것이며, 조기취학제도 도입 초기인 1999년의 8,862명에 비해서는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한국일보, 2008. 2. 12).

이와 같은 통계자료를 볼 때 부모들은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 입학한 후의 학교성취도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입학한 아동들이 새로운 교육기관인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조기 입학이 허용된 이후 일찍 학교에 입학한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성취도 및 적응은 또 다른 중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조기에 성공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것이 학습준비도이다.

학습준비도는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이나 학습과제의 특성까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Anastasi(1988, p. 441)는 학습준비도를 “학교 수업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선행학습 기술, 지식, 태도, 동기 및 행동 특성의 습득”이라고 정의하였다. 학습준비도를 초기 학습에 대한 준비로 정의할 때 이것은 인지적인 면과 사회정서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혹은 학원 등에 다니지 않았던 유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들은 처음으로 정규 교육기관을 경험하게 되어 부모가 아닌 성인, 즉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또래들과 어울려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혼자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닌 경험이 있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초등학교라는 보다 형식적인 교육기관에 다니게 되면 학령전 교육·보육기관과 다른 규율이나 학교체제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이은혜(2001, p. 222)는 학습준비도

를 초등학교 초기 학습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기초 지식, 기술, 태도, 동기 등의 획득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Zigler(1998)도 학습준비도는 유아의 행동과 인지발달, 교실에서의 적응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Parker, Boak, Griffin, Peay, & Ripple, 1999).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산업화 사회 속에서 유아들은 매일 다양한 환경에 접하고 있으며 이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현대사회가 다양화될수록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사회 및 유아가지니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준비도는 인지적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정서적 영역도 포함해야 한다. 그에 따라 최근 학습준비도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며 유아가 가정에서 경험한 것과 가정의 교육적 자원, 유아가 다니는 취학 전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자원과 경험,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지원 등의 요인들을 모두 결합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허혜경, 2007).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준비도는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역이 모두 포함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유아의 사회·정서적 영역의 특성으로 창의적 특성과 성격특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창의적 특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나 그것을 기초화하는 특성(전경원, 2000, p. 13)이다. 특히 Mellon(1995)은 창의적인 유아는 정교한 부분에 대한 관심, 다양성, 정교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Neff(1975)는 창의적인 유아는 융통성이 있고 인내심과 책임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교적이며 성공지향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Gardner(1991)도 적어도 7세까지의 유아들은 비교적 비형식적인 창의적 활동들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료를 탐구하면서 어떤 것에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것인가를 발견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창의적 특성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학자들의 지적에 따라 유아의 창의적 특성은 학습준비도와 관련한 동기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성격특성도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성격은 사회적 기술이나 능숙함, 혹은 남에게 주는 두드러지고 뚜렷한 인상으로서 개인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고나 정서를 포함하는 독특한 행동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성격을 Rogers(1951)는 유기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특성이며, Guildford(1959)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독특한 양식으로 정의

하였다(황보연정, 2008, p. 6). 또한 Kelly(1955)는 자신의 생활경험으로부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자기 나름의 독특한 방법으로 정의하였다(Hall & Lindzey, 1978, p. 9).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성격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조성연(2002)의 결과,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여아의 사회성, 가족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정서성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는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인간관계가 원만하여 대인적응성이 강하고, 가족생활이 긍정적인 성격을 지닌 여아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잘되지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낮은 여아는 학교에 대한 적응과 준비가 잘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Adler, Kretchmer, Sheldon 등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지닌 개인은 사회적으로 더 수용되기 쉽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국인간발달학회, 1997, p. 371). 이는 유아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경우에 학습에 대한 적응이나 준비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정서적 요인뿐만 아니라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즉 유아의 연령, 성, 다니는 기관, 거주지, 부모의 교육수준과 부모의 직업유형 등도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취학 전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관련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도 그리 많지 않다. 유아의 연령은 학교에 진학하여 생활하는데 대한 독립적인 예언변인이 아니며(Alexander & Entwistle, 1988; Gredler, 1980; Jones & Mandeville, 1990; Sheperd & Smith, 1986), 오히려 유아의 읽기 성취와 관련된 준비도에 대해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가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Christenson, 1995; Eccles & Harold, 1996; Griffith, 1996; Jones & Mandeville, 1990; Moles, 1996; Parker *et al.*, 1997, 1999)이 있다. 그러나 Morrison, Griffith와 Alberts(1997)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유형은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되는 결과도 제시한 바 있다. 조성연(2002), Morrison 외 (1997)도 취학 전 유아의 학습준비도에는 성차가 없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아버지의 직업유형은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학습준비도가 더 높거나(조성연, 2002; Parker *et al.*, 1999),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상반된 연구결과(Morrison *et al.*, 1997)가 있고, 어머니의 직업유형은 학습준비도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조성연, 2002)도 있다.

취학 전 유아 대상의 창의적 특성이나 성격특성은 측정

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과 측정도구 등의 부족으로 인해 그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취학 전 시기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은 많지만 취학 전 시기에서 학령기로 넘어가기 위한 학습준비도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 특히 사회가 다변화할수록 개인의 창의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유아의 학습준비도가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 즉 성격과 관련해서도 어떤 관련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러나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관련하여 창의적 특성과 성격 등을 관련지어 연구한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학습준비도와 관련된 창의적 특성과 성격과의 관계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그런 변인들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취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학습준비도와 관련한 사회·정서적 측면으로 창의적 특성과 성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의적으로 필요하고 의의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와 같이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요하는 경우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유아가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 학습준비도와는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취학 전 교육에서 초등학교의 학습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기초적인 자료와 취학 후의 유아의 학교적응을 위한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필요성 및 의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유아의 학습준비도, 창의적 특성 및 성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둘째,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및 성격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셋째,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창의적 특성과 성격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5, 6세의 유아 131명을 유의표집하였다. 5세의 평균은 5세 6개월( $SD = 3.43$ )이고, 6세의 평균은 6

세 2개월( $SD = 2.45$ )이었다. 연구대상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선정된 연구대상 유아는 5세(60.3%)가 6세(39.7%)에 비해 더 많이 표집되었으며, 남녀는 비슷하게 표집되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73.3%)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26.7%)에 비해 더 많이 표집되었다. 부모의 직업유형은 아버지의 경우에는 사무직과 관리직(61.8%)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전업주부(52.7%)가 가장 많았으나 취업한 경우에는 사무직과 관리직(20.6%)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에는 4년제 대졸 이상(64.9%)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고졸(47.3%)이 가장 많았다. 부모의 연령은 30대가 40대에 비해 더 많았다.

2. 연구도구

1) 학습준비도검사

학습준비도검사(KLRT)는 김정권과 여광웅(1987)이 제작한 표준화검사이다. 이 검사는 개별검사로서 지식, 신체개념, 정서적 지각, 부모상 지각, 놀이지각, 시각-운동협응, 지시에 따르는 능력, 기억력 등을 포함하는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주어 0~27점의 점수범위를 이룬다.

2) 유아 창의적 특성검사

유아 창의적 특성검사는 전경원(2003)이 부모나 교사의 관찰에 의해 유아의 일상 생활 속에서 보여준 태도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특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한 표준화검사이다. 이 검사는 40문항의 간편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진위형 검사로서 각 문항의 내용이 유아의 특성과 일치하면 예(1점),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오(0점)에 각각 체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0~40점의 점수범위를 이루도록 되어있다. 본 검사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인지적 요인(11문항)과 탈고정관념/

독자성, 호기심/모험심, 다양성, 민감성, 유머감각, 개별성 등의 정의적 요인(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인지적 요인은 0~11점, 정의적 요인은 0~29점의 점수범위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어머니가 평정하였으며,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의 두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3) 성격검사

유아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4~7세용 송인섭(1992)의 표준화 유아성격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개별검사로서 학문성(7문항), 사회성(7문항), 가족성(6문항), 정서성(6문항)의 4개 하위영역의 총 26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유아가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예'인 경우에는 2점, '아니오'인 경우에는 1점으로 채점되어 학문성과 사회성은 7~14점, 가족성과 정서성은 6~12점의 총 26~52점의 점수범위를 이룬다. 학문성은 공부하는 활동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회성은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협동적이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대인적응성에 대한 특성이며, 가족성은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는지를 나타내는 특성이며, 정서성은 이상성, 도덕성, 신체, 외모 등을 나타내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 등을 나타내는 특성이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표집한 연구대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도구에 대해 연구자로부터 훈련을 받은 지역별 4명의 검사자들(경기지역은 2명)이 유아에게 학습준비도검사와 성격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유아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유아의 어머니가 유아 창의적 특성검사에 응답하도록 하여 모든 자료를 회수하였다. 학습준비도 검사와 성격검사는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C프로그램(17.0)에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131)

| 유아   | 하위범주 | N(%)     | 부모   | 하위범주       | 부(N(%))  | 모(N(%))   |
|------|------|----------|------|------------|----------|-----------|
| 연령   | 5세   | 79(60.3) | 직업유형 | 전문직 · 교육직  | 12(9.2)  | 20(15.3)  |
|      | 6세   | 52(39.7) |      | 사무직 · 관리직  | 81(61.8) | 27(20.6)  |
| 성    | 남    | 66(50.4) |      | 자영업 · 서비스직 | 38(29.0) | 15(11.5)  |
|      | 여    | 65(49.6) |      | 전업주부       | .        | 69(52.7)  |
| 거주지역 | 서울   | 23(17.6)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35(26.7) | 62(47.3)  |
|      | 경기도  | 74(56.5) |      | 전문대졸       | 11(8.4)  | 16(12.2)  |
|      | 충청남도 | 34(26.0) |      | 4년제 대졸 이상  | 85(64.9) | 53(40.5)  |
| 기관유형 | 유치원  | 96(73.3) | 연령   | 30대        | 83(63.4) | 109(83.2) |
|      | 보육시설 | 35(26.7) |      | 40대        | 48(36.6) | 22(16.8)  |

의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t 검정, Pearson의 편상관계,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유아의 연령별, 성별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및 성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학습준비도 평균은 전체적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6세아가 5세아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창의적 특성의 총점은 전체적으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약간 더 높았지만 연령별로 볼 때 5세는 여아가, 6세는 남아가 더 높았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인지적 요인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높고, 정의적 요인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5세인 경우에 인지적 요인은 남아, 정의적 요인은 여아가 더 높았으나, 6세에서는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 모두 남아가 더 높았다. 성격특성은 전체적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더 높은 점수를 산출했으나, 연령별로는 정서성을 제외하고는 5세아가 6세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및 성격에서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유아의 학습준비도, 창의적 특성과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연령, 지역, 기관유형, 부모연령과 모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성, 부교육수준과 부모직업유형 및 모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아의 학습준비도, 창의적 특성, 성격에서 하위요인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산출되었다. 산출된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은 성격의 하위요인 중 사회성에 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았다. 부교육수준은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의 총점 및 하위요인 중 정서적 요인, 사회성을 제외한 성격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학습준비도는 4년제 대졸과 고졸 간에서 차이가 있어 아버지가 4년제 대졸의 교육수준을 지닌 경우에 가장 높았다. 창의적 특성의 정서적 요인은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간에서, 창의성 총점은 고졸이하와 4년제 대졸 간에서 차이가 있어 전문대졸 이상과 4년제 대졸이상의 부교육수준인 경우에 창의성 수준이 더 높았다. 성격 중 학문성은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간에, 정서성은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고졸이하와 4년제 대졸 간에, 가족성은 고졸이하와 4년제 대졸 간에서 차이가 있어 전문대졸과 4년제 대졸의 부교육수준이

<표 2>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및 성격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131)

|        | 5세(n = 79)         |                    |                    | 6세(n = 52)         |                    |                    | 전체(N = 131)        |                    |                      |                 |
|--------|--------------------|--------------------|--------------------|--------------------|--------------------|--------------------|--------------------|--------------------|----------------------|-----------------|
|        | 남(n = 40)<br>M(SD) | 여(n = 39)<br>M(SD) | 계(n = 79)<br>M(SD) | 남(n = 26)<br>M(SD) | 여(n = 26)<br>M(SD) | 계(n = 52)<br>M(SD) | 남(n = 66)<br>M(SD) | 여(n = 65)<br>M(SD) | 전체(N = 131)<br>M(SD) |                 |
| 학습준비도  | 19.64<br>(3.45)    | 20.27<br>(2.64)    | 19.94<br>(3.09)    | 20.21<br>(2.53)    | 20.83<br>(2.92)    | 20.53<br>(2.73)    | 19.86<br>(3.12)    | 20.51<br>(2.75)    | 20.18<br>(2.95)      |                 |
| 창의적 특성 | 인지적 요인             | 6.39<br>(2.60)     | 6.18<br>(2.42)     | 6.29<br>(2.51)     | 6.46<br>(2.90)     | 5.97<br>(3.27)     | 6.21<br>(3.01)     | 6.42<br>(2.70)     | 6.09<br>(2.79)       | 6.21<br>(2.78)  |
|        | 정의적 요인             | 16.84<br>(4.22)    | 17.95<br>(4.54)    | 17.37<br>(4.38)    | 18.14<br>(8.94)    | 17.79<br>(4.52)    | 17.96<br>(4.42)    | 17.35<br>(4.30)    | 17.88<br>(4.49)      | 17.61<br>(4.39) |
|        | 총점                 | 23.23<br>(6.30)    | 24.13<br>(6.10)    | 23.66<br>(6.19)    | 24.61<br>(6.43)    | 23.76<br>(6.87)    | 24.18<br>(6.61)    | 23.76<br>(6.34)    | 23.97<br>(6.39)      | 23.87<br>(6.34) |
| 성격     | 학문성                | 12.77<br>(1.51)    | 13.05<br>(1.22)    | 12.90<br>(1.38)    | 12.40<br>(2.03)    | 12.72<br>(1.51)    | 12.56<br>(1.77)    | 12.62<br>(1.72)    | 12.91<br>(1.35)      | 12.77<br>(1.55) |
|        | 사회성                | 13.00<br>(1.01)    | 13.25<br>(.90)     | 12.90<br>(.99)     | 12.40<br>(1.39)    | 12.72<br>(.88)     | 12.56<br>(1.21)    | 12.62<br>(1.23)    | 12.91<br>(.89)       | 12.77<br>(1.10) |
|        | 가족성                | 11.41<br>(.97)     | 11.55<br>(.96)     | 11.48<br>(.96)     | 11.04<br>(1.17)    | 11.28<br>(1.22)    | 11.16<br>(1.19)    | 11.26<br>(1.06)    | 11.43<br>(1.08)      | 11.35<br>(1.07) |
|        | 정서성                | 10.80<br>(1.39)    | 11.28<br>(.93)     | 11.02<br>(1.21)    | 10.96<br>(1.07)    | 11.14<br>(1.10)    | 11.05<br>(1.08)    | 10.86<br>(1.27)    | 11.22<br>(1.00)      | 11.04<br>(1.15) |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학습준비도, 창의적 특성과 성격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N = 131)

|               | 성        | 학습<br>준비도         | 창의적 특성         |                   |                   | 성격                |                 |                   |                   |
|---------------|----------|-------------------|----------------|-------------------|-------------------|-------------------|-----------------|-------------------|-------------------|
|               |          |                   | 인지적요인          | 정의적 요인            | 총점                | 학문성               | 사회성             | 가족성               | 정서성               |
| 성             | 남        | 19.86<br>(3.12)   | 6.42<br>(2.70) | 17.35<br>(4.30)   | 23.76<br>(6.34)   | 12.63<br>(1.72)   | 12.75<br>(1.23) | 11.26<br>(1.06)   | 10.86<br>(1.27)   |
|               | 여        | 20.51<br>(2.75)   | 6.09<br>(2.79) | 17.88<br>(4.49)   | 23.97<br>(6.39)   | 12.91<br>(1.35)   | 13.17<br>(.89)  | 11.43<br>(1.08)   | 11.22<br>(1.00)   |
|               | <i>t</i> | -1.30             | .71            | -.73              | -.19              | -1.10             | -2.35*          | -.95              | -1.85             |
| 부<br>교육<br>수준 | 고졸이하     | 19.11b<br>(3.36)  | 5.47<br>(3.08) | 16.08a<br>(4.51)  | 21.55a<br>(6.75)  | 12.21a<br>(1.74)  | 12.76<br>(1.13) | 10.76a<br>(1.38)  | 10.45a<br>(1.47)  |
|               | 전문대졸     | 19.67ab<br>(2.54) | 6.08<br>(2.11) | 19.08b<br>(4.12)  | 25.17ab<br>(5.11) | 13.08b<br>(1.00)  | 13.08<br>(1.00) | 11.67b<br>(.49)   | 11.08ab<br>(.90)  |
|               | 4년제 대졸   | 20.69a<br>(2.71)  | 6.61<br>(2.62) | 18.05ab<br>(4.25) | 24.66b<br>(6.13)  | 13.02ab<br>(1.10) | 13.02<br>(1.10) | 11.55b<br>(.87)   | 11.27b<br>(.94)   |
|               | <i>F</i> | 4.25*             | 2.36           | 3.59*             | 3.62*             | 4.62*             | .83             | 8.70***           | 7.59***           |
| 부<br>직업<br>유형 | 전문직·교육직  | 20.79<br>(2.01)   | 6.71<br>(3.25) | 17.07<br>(5.51)   | 23.79<br>(8.33)   | 12.36ab<br>(1.74) | 13.29<br>(.73)  | 11.36ab<br>(1.45) | 11.14ab<br>(1.10) |
|               | 사무직·관리직  | 20.16<br>(3.05)   | 6.40<br>(2.58) | 18.07<br>(3.61)   | 24.47<br>(5.21)   | 13.13a<br>(1.32)  | 12.98<br>(1.06) | 11.52a<br>(.79)   | 11.22a<br>(.99)   |
|               | 자영업·서비스직 | 20.02<br>(3.05)   | 5.84<br>(2.87) | 16.91<br>(5.26)   | 22.75<br>(7.51)   | 12.20b<br>(1.72)  | 12.82<br>(1.24) | 11.02b<br>(1.32)  | 10.66b<br>(1.38)  |
|               | <i>F</i> | .36               | .81            | 1.13              | 1.06              | 6.09**            | .100            | 3.18*             | 3.54*             |
| 모<br>직업<br>유형 | 전문직·교육직  | 20.95<br>(1.96)   | 6.60<br>(2.78) | 19.30<br>(4.70)   | 25.90<br>(6.49)   | 12.45<br>(1.67)   | 12.70<br>(1.13) | 11.20ab<br>(1.24) | 11.15<br>(.99)    |
|               | 사무직·관리직  | 19.67<br>(3.70)   | 6.23<br>(2.83) | 16.53<br>(4.11)   | 22.77<br>(6.25)   | 13.07<br>(1.44)   | 13.13<br>(1.01) | 11.40ab<br>(1.00) | 10.87<br>(1.48)   |
|               | 자영업·서비스직 | 19.63<br>(3.78)   | 6.00<br>(2.99) | 16.25<br>(4.41)   | 22.25<br>(6.58)   | 11.87<br>(2.13)   | 12.75<br>(1.07) | 10.63a<br>(1.59)  | 10.81<br>(1.11)   |
|               | 전업주부     | 20.29<br>(2.63)   | 6.23<br>(2.69) | 17.88<br>(4.30)   | 24.11<br>(6.25)   | 12.92<br>(1.36)   | 13.00<br>(1.13) | 11.52b<br>(.84)   | 11.12<br>(1.07)   |
|               | <i>F</i> | .98               | .15            | 2.26              | 1.38              | 2.76*             | .85             | 3.41*             | .61               |
| 모<br>취업<br>유무 | 취업       | 20.05<br>(3.30)   | 6.29<br>(2.82) | 17.30<br>(4.50)   | 23.59<br>(6.49)   | 12.59<br>(1.74)   | 12.91<br>(1.06) | 11.15<br>(1.26)   | 10.94<br>(1.25)   |
|               | 비취업      | 20.29<br>(2.63)   | 6.23<br>(2.69) | 17.88<br>(4.30)   | 24.11<br>(6.25)   | 12.92<br>(1.36)   | 13.00<br>(1.13) | 11.52<br>(.84)    | 11.12<br>(1.07)   |
|               | <i>t</i> | -.50              | .13            | -.78              | -.48              | -1.24**           | -.49            | -2.07***          | -.93              |

주. a, b, c는 사후검증 결과 서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 $p < .05$ . \*\* $p < .01$ . \*\*\* $p < .001$ .

고졸에 비해 더 높았다. 부직업유형은 성격 중 학문성, 가족성, 정서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산출되었다. 사후검증 결과, 모두 사무직·관리직과 자영업·서비스직 간에서 차이가 있어 사무직·관리직의 직업유형인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산

출하였다. 모직업유형은 성격 중 학문성과 가족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성의 경우에 자영업·서비스직과 전업주부 간에서 차이가 있어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가장 높았다. 모직업유형을 취업유무와 관련하여 살펴본

〈표 4〉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및 성격과의 편상관계수 (N = 131)

|        | 창의적 특성 |      |       | 성격   |      |      |      |
|--------|--------|------|-------|------|------|------|------|
|        | 인지적    | 정의적  | 총점    | 학문성  | 사회성  | 가족성  | 정서성  |
| 학습준비도  | .23**  | .20* | .24** | -.05 | .14  | .12  | .10  |
| 창의적 특성 | 인지적 요인 | -    | -     | -.11 | .09  | -.03 | -.03 |
|        | 정의적 요인 | -    | -     | -.01 | -.03 | -.01 | -.01 |
|        | 총점     | -    | -     | -.05 | .02  | -.02 | -.02 |

\* $p < .05$ . \*\* $p < .01$ .

결과에서는 학문성과 가족성에서 비취업모 유아가 취업모 유아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다. 요약해볼 때,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의 총점과 하위요인 중 정의적 요인은 부모교육수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격은 성에 따라서는 사회성에서만, 부모교육수준과 부모직업유형 및 모취업유무에 따라서는 학문성, 가족성, 정서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2.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및 성격과의 상관관계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및 성격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산출된 성, 부모교육수준과 부모직업유형을 통제하여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및 성격과의 편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간에는  $r = .20 \sim .24$ 의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학습준비도와 성격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성격과 창의적 특성 간에도 상관관계가 없었다.

3.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창의적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창의적 특성과 성격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종속변인은 학습준비도이고, 독립변인으로는 학습준비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던 성격을 제외한 창의적 특성의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유의한 차이가 산출된 유아의 성, 부모교육수준, 부모직업유형이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VIF는 1.034로 10보다 작고, Durbin-Watson 계수는 1.861로 2보다 작아 잔차 간 자기 상관 없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기본가정을 만족하였다. 또한 유아의 성과 부모직업유형은 연속적 변인이 아니어서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학습준비도에 대해 창의적 특성의 하위요인과 성격의 하위요인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한 결과, 창의적 특성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요인( $R^2 = 5.8\%$ )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부모교육수준( $R^2 = 3.2\%$ )만이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유의하게 설명해줌으로써 이들 두 변인들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대해 9%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유아의 인지적인 창의적 특성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5〉 학습준비도에 대한 창의적 특성과 성격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N = 131)

| 독립변인           | B    | SE B | $\beta$ |
|----------------|------|------|---------|
| 창의적 특성의 인지적 요인 | .234 | .088 | .217**  |
| 부모교육수준         | .671 | .274 | .201*   |

주. 제1단계  $R^2 = .058$ ; 제2단계  $\Delta R^2 = .032$ ( $ps < .05$ ).  
\* $p < .05$ . \*\* $p < .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관련하여 사회정서적 측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대적 관점에 따라 창의적 특성과 성격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산출된 결과에 대해 논의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및 성격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성, 연령, 지역, 기관유형, 부모연령, 부모직업유형, 모교육수준 및 모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Christenson, 1995; Eccles & Harold, 1996; Griffith, 1996; Jones & Mandeville, 1990; Moles, 1996; Parker et al., 1997, 1999)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들(조성연, 2002; Morrison et al., 1997), 어머니의 직업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조성연, 2002)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산출됨에 따라 아버지가 4년제 대졸이상인 경우에 유아의 학습

준비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부모가 전문직일수록 학습준비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들(조성연, 2002; Parker *et al.*, 1999)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있어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교육수준이 높을 때 유아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유아의 취학 전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 그로 인해 유아의 학습준비도 수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창의적 특성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교육수준만이 유의한 차이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은 성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김현주, 1983; 이은혜, 조성연, 1987; 조부경, 조성연, 박수옥, 1996; 조성연, 1990; 홍길희, 조성연, 1988; Comeau, 1980; Cooper, 1984; Gupta, 1981)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창의적 특성이 성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아버지 교육수준이 유아의 창의적 특성에 차이를 산출하는 것은 아버지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과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많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버지가 유아에게 다양한 자극을 제공해줌으로써 호기심과 모험심 및 독자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아의 성격에 대해서는 성, 부모교육수준과 직업유형, 모직업유형 및 취업유무에 따라 하위요인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이고, 사무직과 관리직에 종사하고, 어머니가 전업주부로서 비취업한 경우에 성격의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사교적이고 협동적이었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에 유아의 학문성, 가족성과 정서성이 더 높아 교육수준이 높은 아버지의 유아들이 가족과 어떤 관계를 갖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경향이 있고, 이상성, 도덕성, 신체, 외모 등을 나타내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 등을 더 잘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유형과도 관련이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무직과 관리직에 종사할 때, 유아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것이 유아의 성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련해서는 비취업한 어머니의 유아의 성격특성에서 학문성과 가족성이 더 높은 점수를 산출함에 따라 유아와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성격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준비도와 성격 중 여아의 사회성, 가족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와 정서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

었던 조성연(2002)의 연구결과와는 일관되지 않는다. 이는 취학 전 시기에 유아는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급격히 증가하여 질문도 많아지고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와 노력 속에서 창의성이 발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학습준비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적어도 7세까지의 유아들은 비교적 비형식적인 창의적 활동들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료를 탐구하면서 어떤 것에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것인가를 발견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Gardner(1991)의 설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성격 간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데 필요한 학습준비도에 있어서 성격과 같은 사회정서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의 학습준비도가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측면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던 허혜경(2007)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대해 창의적 특성의 인지적 요인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지만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Morrison 외(1997)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것이지만 부모의 직업유형과 유아의 성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학습준비도를 초기 학습에 대한 준비로 정의할 때 이것은 인지적인 면과 사회정서적인 준비를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창의적 특성의 인지적 요인이 설명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많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설명력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학습준비도에 차이를 나타냈던 것과 연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4년제 대졸 이상인 경우에 가장 높은 학습준비도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 이것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대 사회로 접어들수록 유아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의 빈도가 많아지고, 아버지들이 유아의 일상생활에 더 많이 개입하고 관심도도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인지적 측면의 창의적 특성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설명력이 9%로 높지 않은데 이는 유아의 학습준비도가 인지적 특성이고 창의적 특성은 사회정서적인 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습준비도 검사가 정답의 유무에 따라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이분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이것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의 정도에

따른 다양한 변산을 제공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점차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창의적 특성을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학습준비도에 대한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추후연구를 통해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은 부모교육수준에 따라, 유아의 성격은 부모교육수준, 부모직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둘째,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나 학습준비도와 성격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셋째,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창의적 특성 중 인지적 요인과 부모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논의와 결론을 통해 추후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어머니의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성을 측정함으로써 유아의 학습준비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부모, 특히 아버지와의 관련성에 대해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아버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심도 있는 면접방법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유아의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에 차이가 산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측정 결과가 이분적인 응답이 아니라 다양한 변산을 드러내는 학습준비도와 창의적 특성 검사 도구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정권, 여광웅(2001). **유아 학습준비도 검사요강**. 서울: 특수교육.

김정희, 남기덕, 박영호, 송명자, 송인섭, 심응철 외(1999). **심리학의 이해**(개정판). 서울: 학지사.

김현주(1983). 사회적극놀이 훈련을 통한 취학전 아동의 창의성 증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인섭(2001). **유아성격검사 검사방법요강**. 서울: 학지심리검사연구소.

이은혜(2001). **유아발달의 평가와 측정**. 서울: 교문사.

이은혜, 조성연(1987). 아동의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및 성격 특성간의 관계. **연세논총**, 23, 333-350.

전경원(2000).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 요강**. 서울: 학지심리검사연구소.

전경원(2003). **유아 창의적 특성검사(K-TCT)**. 서울: 학지심리검사연구소.

조부경, 조성연, 박수옥(1996). 교사의 질문유형에 따른 유아의 창의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7(1), 23-37.

조성연(1990). 아동의 창의성 발달 및 이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조성연(2002). 학령전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가정환경(HOME)과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30-111.

한국인간발달학회 편(1997). **유아의 심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한국일보(2008. 2. 12). “아이 왕따당하면 어찌지... 또래도 없는데” 조기취학 갈수록 시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02/h2008021219464522020.htm>에서 2009년 9월 15일 인출.

허혜경(2007). 학교학습준비도 개념의 진화와 효과적인 유아-초등교육 전이. **한국교육**, 34(2), 73-98.

홍길희, 조성연(1988). 5세아의 창의성과 가정환경 변인 및 사회인구론적 변인과의 관계. **신홍전문대학논문집**, 11, 641-665.

황보연정(2008). 청소년 내담자의 성격특성과 상담기대와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lexander, K. L., & Entwistle, D. R.(1988). Achievement in the first two years of school: Patterns and processe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

Anastasi, A.(1988). *Psychological testing*. New York: Macmillan.

Christenson, S. L.(1995). Families and schools: What is the role of the school psychologistst.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0, 118-132.

Comeau, H.(1980).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birth order, and creativit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4(1), 71.

Eccles, J. S., & Harold, R. D.(1996). Family involvement in children’s and adolescents’ schooling.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Symposium on Family-School Links: How do they affect Educational Outcomes? University Park, PA.

Gardner, H.(1991). *The unschooled mind: How children think and how school should teach*. New York: Basic Books.

Griffith, J.(1996). Rel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 empowerment, and school traits to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0, 33-41.
- Gupta, A. K.(1981). Sex difference in creativity: Some fresh evidenc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15(4), 269.
- Hall, C. S., & Lindzey, G.(1978). *Theories of personalit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Jones, M. M., & Mandeville, G. K.(1990). The effect of age at school entry on reading achievement scores among South Carolina student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11, 56-62.
- Mellon, E.(1995). Creativity: The interaction conditi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are*, 109, 143-157.
- Moles, O. C.(1996). New national directions in research and policy. In A. Booth & J. F. Dunn (Eds.), *Family-school links: How do they affect educational outcomes?* (pp. 247-254). Mahwah, NJ: Erlbaum.
- Morrison, F. J., Griffith, E. M., & Albets, D. M.(1997). Nature-nurture in the classroom: Entrance age, school readiness, and learning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54-262.
- Neff, G.(1975). Creativity and group. In G. Neff(Ed.), *Creativity in school and society* (pp. 17-29). Otto Maier, Ravensburg.
- Parker, F. L., Boak, A., Griffin, K. W., Peay, L., & Ripple, C.(1999). Parent-child relationship, home learning environment, and school readiness. *School Psychology Review*, 28(3), 413-425.
- Parker, F. L., Piotrkowski, C. S., Kessler-Sklar, S., Baker, A. J. L., Peay, L., & Clark, B. (1997). *Parent involvement in Head Start*. NY: National Council of Jewish Women Center for the Child.
- Sheperd, L. A., & Smith, M. L.(1986). Synthesis of research on school readiness and kindergarten retention. *Educational Leadership*, 44, 78-86.

---

접 수 일 : 2009년 11월 1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1월 3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19일